

손 맞잡고 함께 가자...광주·전남·전북 6년만에 공조 첫 발

호남 상생의 한 길로



호남이 다시 뭉쳤다. 아직 서막하지만 적어도 자신의 앞길을 위해 상대방을 막아서는 않는다는 전제에 대해서는 광주·전남·전북이 모두 인정할 정도로 분위기는 바뀌었다. 2000년 들어 잦은 마찰을 빚으면서 가슴 한 켠에 자리한 정서적인 괴리감을 없애고 미래를 같은 방향에서 바라볼 공통분모를 찾는 것이 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위기’가 밥그릇 싸움에 골몰했던 형태들을 다시 한자리에 불러모은 것이다. 호남 안에서 조차 소외를 느꼈던 전북은 새만금사업, 군산공항 문제 등이 부상하자 광주·전남을 피했고, 호남의 주도권을 쥐려했던 광주·전남은 무안공항 문제 앞에서 갈라졌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 행정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 조성 등으로 덩치가 커진 충청권이 인구·경제규모 등에서 공식적으로 호남권을 밀쳐내면서 호남 위기가 일어났다.

영남권에 이어 충청권에 도 뒤쳐져 격차는 벌어졌고, 야당의 거점인 탓에 정부·여당에게 철저히 외면 받았으며, 야당 내에서조차 주도권을 상실하는 등 호남은 암울했다. 과거 공평한 살림살이에도 정치적 위상만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지만 이제 그마

“이대론 공멸” 위기의식 공감

민선 6기 들어 정책협의회 재개

12개 협력과제 선정 미래 고민

저도 어렵게 된 것이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지역민들의 시선은 자연히 민선 6기를 이끌어 나갈 광주·전남·전북의 단체장들에게 쏠렸고, 이들은 이에 화답하듯 ‘상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시민단체의 대부분이 광주시장, 국회의원 4선의 정치인 출신 전남지사, 공직자 출신으로 전주 시장을 역임한 전북지사 등 각기 다른 출신과 성향을 보인 단체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선거 이후 4개월이 지난 지난 10월5일 전북 순창에서였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이 같은 ‘만남’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정치인인 이낙연 전남지사의 막후 조율과 윤장현 광주시장의 배려 등이 어우러지면서 2008년 중단된 호남권정책협의회가 6년만에 다시 재개된 것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서해안(군산~목포 간) 철도 건설 호남권 공동대응·호남권 정책협의회 규약 제정 등 모두 12건의 호남상생협력과제에 합의한 뒤 만찬자리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정을 쌓았다. 이와는 별개로 광주·전남은 상생 발전을 위해 지난 10월1일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양 시·도가 합의한 제2남도학숙 건립 등 14개 협력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광역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손해까지 무릅쓰고 호남 상생에 나설 수 있을 것인지, 단기간 내 성과를 내면서 지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광주·전남·전북이 호남의 틀 내에서 미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호남 미래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구축하고 각 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하면서 호남고속철도 개통,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완공, 2015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개막, 전북의 새만금사업, 전남의 기업도시 조성 등의 현안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광주의 자동차밸리, 전남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전북의 탄소산업특화단지 등 미래 산업과 관련 상호 교류 가능성을 연구·분석하고 중앙정부에 공동 대처하면서 호남 잠재력을 증폭시켜야 비로소 ‘상생’의 첫걸음을 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훈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은 “호남권 정책협의회는 인적·문화적 교류 활성화, 공동선을 위한 양보, 미래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 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여주기식’ 상생이 아니라 광주·전남·전북을 광역권으로 묶어 호남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그 틀 내에서 단기·중기·장기 과제를 선정해 실천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 현안과 관련 단체장, 의원, 지역정치인 등이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등 상생의 자세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윤장현 광주시장(왼쪽부터), 송하진 전북지사, 이낙연 전남지사가 지난해 10월5일 전북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6년만에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열고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국제도시 도약 발판 글로벌 마인드부터 갖추자

시민의식업그레이드



2015년은 광주시가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해다.

호남선 KTX 개통,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전 세계 젊은이들의 축제인 하계유니버시아드 개막 등 대형 이벤트가 줄줄이 예약돼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세계 170여개국에서 2만 여명에 이르는 선수들과 심판·임원진, 기자단 등을 맞이해야 하는 만큼 광주시민을 ‘국제 매너’를 갖춘 선진 시민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시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의 여러 국제 대회에서 입증됐듯 개최도시 시민의 친절의식 등 선진시민 정신이 성공 개최의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 추진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불법 주정차, 무단횡단 등 기초질서 지키기를 비롯한 불친절한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의 서비스 선진화는 꼭 개선해야 할 숙제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운전자의 친절 교육과 함께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해주는 대신 상습 불친절 운전자에 대해서는 ‘3진 아웃제’ 등을 도입해 영구 퇴출하는 등 강력한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보도 위 침이나 꺾벨기, 무분별 흡연, 공공 장소에서 큰 목소리로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작고 사소한 듯 보이지만 도시의 품격과 직결되는 기본 에티켓을 지키는 자세도 필요하다.

식·숙박 업체의 불친절한 서비스와 바가지 상환 등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실제 최근 광주를 방문한 외국인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식·숙박 업체의 불친절한 서비스다. 또한 국제기준에 맞는 접객 매너도 갖춰야 할 부분이다.

광주의 일부 유명 레스토랑이나 음식점·호텔 등

U대회 등 연이은 국제행사

친절·기초질서·배려...

시민 ‘국제 매너’ 갖추기 절실

에서는 외국인 손님들에게 다식은 스테이크를 내놓는가 하면 음식 접시를 던지듯 내려놓는 사례도 많다는 게 국제 행사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시가지 청결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도심 곳곳에 방치된 생활쓰레기와 제때 수거 안된 음식물 쓰레기통 등은 대표적 흉물이다.

대낮에도 대로변 곳곳에 쌓여있는 쓰레기들은 외국 방문객들이 광주를 후진국 도시로 평가하는 요스 중 하나로 꼽힌다. 또한 시도 때도 없이 길가에 내놓은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풍기는 악취는 외국인인 물론 한국인들도 참기 힘든 고역이다.

이에 따라 일부 선진국처럼 음식물 쓰레기통을 밤 9~10시 이후에 내놓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꽃박스와 화단을 조성해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시가지 쓰레기통을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게 공공디자인을 적용해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저분하고 다 지워진 도심 주요 도로의 차선을 새로 칠하고, 외국어로 표기된 교통 안내 표지판 등도 재점검해 방문 손님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광주시와 시민들의 공동 노력을 통해 시민의식을 비롯한 도시환경이 업그레이드 된다면 광주의 브랜드 가치와 국제적 위상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 브랜드가 높아지면 광주시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과 첨단 관광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의 가치 상승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 광주의 높은 수준을 전 세계에 뽐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민의식 함양이 필수 요소라는데 이견을 제시하는 이는 없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지역 청소년들이 남광주시장 앞 광추천에서 쓰레기를 줍는 등 ‘깨끗한 광주만들기’ 활동을 하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저희 병원의 엄마사랑 아이사랑 정신은 계속됩니다.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에덴병원”

올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 보내주신 크나큰 사랑에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표원장 허 정의 임직원일동

- 호남 최초 여성병원 의료기관 인증 획득**
- 보건복지부 「산부인과 전문병원」 지정**
 - 자연분만 전국 1위 분만건수 전국 3위
 - 제1회 임산부의 날 '대통령표창' 수상

에덴병원
 광주광역시 북구 면암로 170번길 10(두암동)
 대표전화 | (062)260-3000